

도민을 위해, 더 특별한 전북 위해 역량 쏟을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첫 마 음 그대로, 전진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길 을 열었다. 전북자치도는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지역 경제에 희망을 심었고, 올해도 이 희망의 불씨를 더욱 키울 전망이다.

김 지사는 “지금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 지만, 지혜로운 민주시민의 힘으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 다. 중요한 것은 경제”라며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북특별 법을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 업지구 등 다양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올사년 새해를 맞아, 김 지사의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 해 들어봤다.

.....

Q.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의 의미는?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자치와 도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 북도라는 이름을 뒤로하고, 독자적인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 니다. 대한민국 미래 정책테스트베드로서 전북 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됐습니다. 즉,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 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손으 로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지난 연말 본격적 으로 시행되면서 출범 이후 1년간 발간한 75개 의 실행과제 중 52건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 했습니다. 전북특별법의 핵심인 농생명산업지 구, 산악관광진흥지구 등 14개 특구·단지 조 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도 민의 삶에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본격적으로 만들겠습니다.

Q. 특별법 시행으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변 화, 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 요?

- 아무래도 농생명산업지구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는 농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이 권 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지 활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지면서, 농생명산업지구는 단순 농산물 생산 기지가 아니라 가공, 유통, 수출, 관광까지 포 괄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남 원, 장수, 진안, 익산 등 선도지구 7곳을 이미 선정했습니다. 빠르게 조성을 해서 그 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특례도 관심을 모 으는 특례입니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숲속 야영장이나 산 림레포츠 시설 설치가 비교적 쉬워집니다. 또 한 경사도와 표고 제한이 완화돼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치유와 산 약레포츠 등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 3개 지구를 지정해서 산악 지역에 단순한 휴식 처를 넘어 관광과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나도 록 하겠습니

Q. 2025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도정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 새해에도 전북도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는 ‘도전’입니다. 도전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실현하는 의지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난해 꾀바리의 아픔을 딛고, 2024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 습니다. 어려움을 반전시키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2036년 올림픽 유치, 기업 유치, 민생 경제 회복 등 전북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 업 육성에 주력하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 도법 특례 실행으로 가시화된 14개 지구·특 구·단지를 신속히 지정해 전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새해에도 열심 히 뛰겠습니다.

Q. 현재 전북도정의 가장 큰 목표는 2036 하 계올림픽 유치입니다. 국내 유치 도시 경쟁을 두고 서울과 전북, 두 곳의 평가 절차가 곧 진 행됩니다. 유치 전략이 궁금합니다.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준비하면서 교훈 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5성급 호텔과 대규모 컨벤션이 대회 유치의 전제조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경쟁지였던 제주와 인천도 5성 급 호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우리로선 매 우 불리한 상황에서 유치를 뒀어든 것이죠. 기 존의 평가방법과 동일한 문법으로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자, 호텔과 컨벤션에 익숙한 비즈니스맨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만의 장점인 한옥, 한식, 한복, 판소리를 보여주고 또 가장 역동 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의 땅 새만금을 보 여주자는 콘셉트를 제안했고, 이게 적중했습니 다.

올림픽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대도 시인 서울과 동양선상에서 경쟁한다면 승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이 한국에 서 무엇을 보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 고 싶은지에 중점을 두면 우리가 충분한 경쟁 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서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 민 절반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 습니다. 각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과 문화를 갖 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연대해서 올림 픽을 함께 치른다면 균형발전도 실현할 수 있 고 대한민국 전체가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두를 전북이 선도적 으로 던진 것이고,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서 실 현해 나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면 전북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Q. 취임 이후 기업 유치와 미래 성장산업을 강조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작년에 바이오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기업 72개사 2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 치했습니다. 올해도 전북의 목표는 분명합니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신산업을 선도할 것입니다. 특히 이차전지와 바이오, 방위산업, 미래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5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푸드와 금융, 기후, 문화테크 관련 기업 유치를 노력할 계획입니 다. 투자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회발 전특구가 지난해 88만 평 정도 지정됐는데 올 해 112만 평 추가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새만 금 산단 품절의 동력이 된 새만금투자진흥지 구도 3·7·8공구, 약 38만 평을 추가로 지정 받으려고 합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원주 수소산업단지 등 신규 국가첨단산업 예타 통과와 함께 신규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노후산단 은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업 투자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투자보 조금 선지급제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고, 기업호응이 좋은 유치기업전담제도 이어가겠 습니다.



“

미래 정책테스트베드로서 가능성 시험해볼 계기 마련

특별법 시행으로 먼저 달라지는 변화는 농생명산업지구

새해 전북자치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도전’

비수도권 연대로 올림픽 유치 비전 제시하면 전북에 기회

이차전지 등 각 산업이 가진 가능성 살리며 경쟁력 확보

도전·혁신, 성공·성과 선순환 시스템 조성이 목표

.....

Q.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재생에너지 등 5대 산업을 말 씀하셨습니다. 이들 신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계획입니까?

- 전북은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수소, 재생에너지, 이렇게 5대 신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 산업이 가진 가능 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확 보하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은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광물가공과 리 사이클링에 특화된 곳입니다. 여기에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 고, 이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차 전지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 박사급 인력들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벤처펀드도 조성해서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은 그린바이오표를 기반으로 레드바 이오로 확장하려 합니다. 앞으로 5년간 150개 레드바이오 기업을 유치해 바이오산업의 외연 을 넓히고, 전북이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방위산업은 첨단소재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 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탄소산업, 원주의 수소산업, 그리고 새만금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연계해서 새만 금 민간 겸용 실증테스트베드와 연구 실증단 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은 전북이 이미 선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원주에 수소특화 국가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 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 에너지용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RE100 기반의 친환경 산 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Q. 전주-원주 통합은 신년에도 중요한 이슈 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

주-원주 통합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 이번 전주-원주 통합 논의는 과거와는 의 미가 다릅니다. 이전에는 주로 행정 주도로 통 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군민들이 직 접 통합을 건의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군 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원주 군민들이 통합을 통해 기대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107개의 과제를 전주시에 제 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통합청사를 완주에 건립하는 방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같 은 구체적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요구들을 전주시가 경청하고, 정책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주민들의 뜻에 달려 있 습니다. 도(道)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 니다.

Q. 김제와 부안, 군산이 참여하는 새만금 특 별 지자체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은 군산, 김제, 부 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 개발을 가속 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별지자체가 출 범하면 행정비용 절감, 국가 예산 확보의 우 위,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의화처럼 3개 시군이 공 동으로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돼 지역 간 소통 과 협치를 정례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작년에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용역 을 통해 협력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생과 공존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공동발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획·행정, 관광·산업, 환경·농업 등 6대 분야에서 47개 협력과제를 도출했 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특별지자체 설립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의 청

사진을 구체화하고, 설립 절차를 신속히 추진 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 니다.

Q.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았습니다. 남은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 민선 8기의 도정 슬로건은 ‘함께 혁신, 함 께 성공, 새로운 전북’입니다. 지난 2년간 전북 의 혁신과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도민들과 함 께하려고 힘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쉬 운 부분이 많습니다.

취임 이후 외부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전북이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제·개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그리고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성공 개최 같은 성과를 도민과 함께 이뤄 냈습니다.

전북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기 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을 수상하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기업하기 좋은 전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 지 않을지라도, 전북이 변하고 있고 더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고 싶습 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백년 동안 전북을 든든히 지탱할 발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기반을 전북에 만들 어 가고 싶습니다.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도전과 혁신, 성공 과 성과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 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도민 삶의 질 향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성과가 아니라, 백년 동안 전북을 든든히 지탱할 발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장 기반을 전북에 만들 어 가고 싶습니다.

Q. 새해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함께 도전하며 전북의 가 능성과 지력을 확인했습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은 전북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 준 순간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단합과 헌 신이 만들어낸 성과였고, 도민과 함께라면 어 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 니다.

새해에도 전북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 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시행으로 농생명산업과 산악관광 등 특화된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더 나 은 일자리를 만들어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 겠습니다. 2036년 올림픽 유치라는 담대한 도 전도 이어가겠습니다.

전북이 하는 모든 도전은 도민의 삶과 민생 을 향합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도민 을 위해,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 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호 기자